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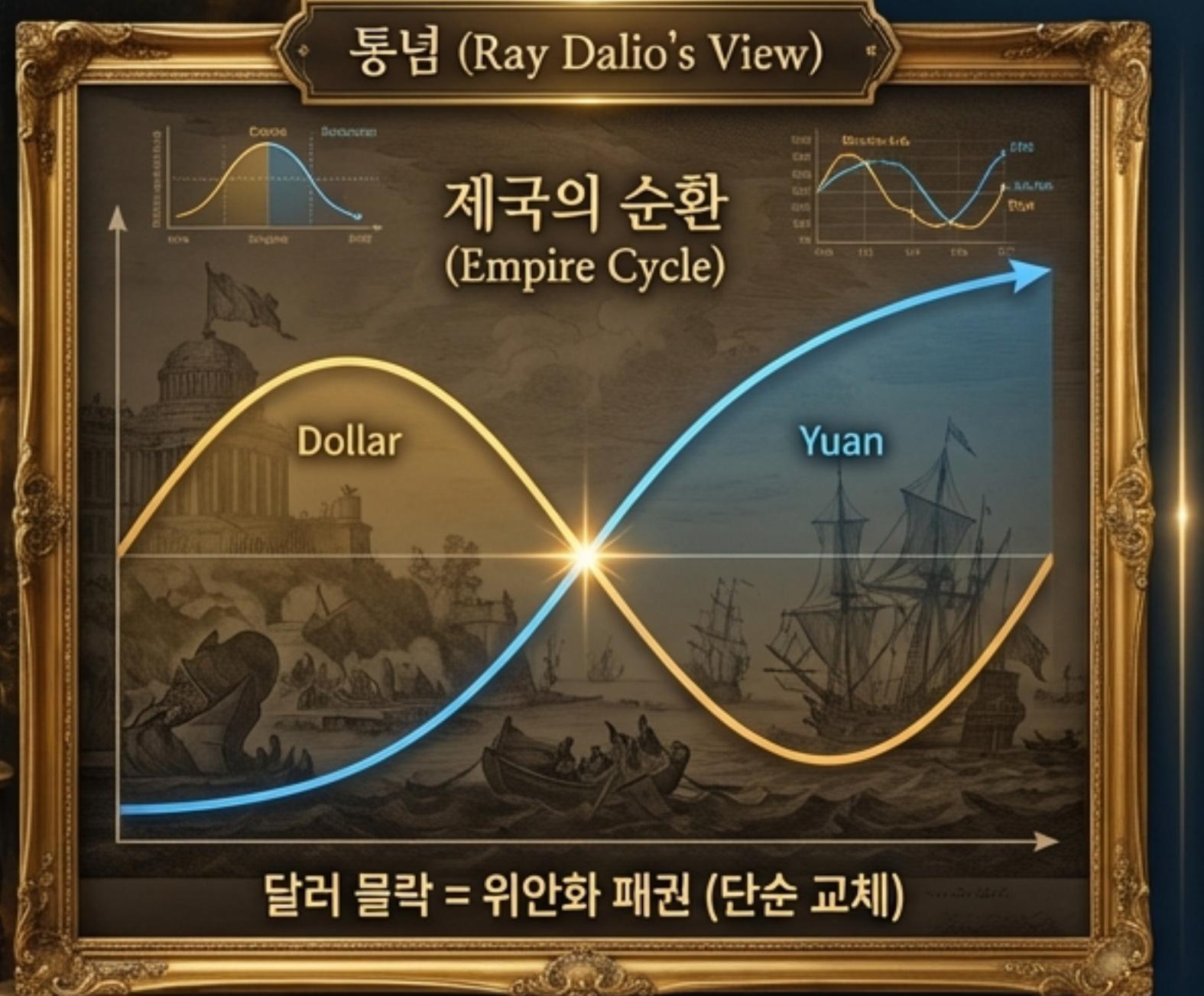
달러의 미래, 네덜란드 굴덴에서 답을 찾다

17세기 암스테르담 은행과 21세기 연준의 평행이론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달러는 붕괴할 것인가?'를 묻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축통화였던 네덜란드 굴덴의 흥망성쇠는 지금 달러가 걷고 있는 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거울을 통해 현재의 신호를 읽고, 다가올 부의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레이 달리오의 예측은 절반만 맞았다



일반적인 통념은 달러가 물락하면 중국 위안화가 패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 구조와 신뢰도 문제는 패권 장악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달러 패권 이후, 즉각적인 대체 통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주라. 마기 술리지면
우리는 종이돈이 아닌 '실물 자산(Gold/Resource)'이 부상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신뢰의 혁신: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의 탄생



1609 암스테르담 은행
(Bank of Amsterdam)

- **화폐의 혁명:** 깎여나가는 금화(Coin Clipp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부상 화폐 '뱅크 굴덴' 발명.
- **신뢰 프리미엄:** 100년간 완벽한 지급준비율 유지. 실물 금화보다 5~10% 비싸게 거래됨.
- **현대적 평행:** 이는 오늘날 '중앙화된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실물 지폐보다 은행 앱의 숫자를 더 신뢰하는 시스템의 시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행 앱의 숫자를 실물 현금보다 더 신뢰하는 시스템은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원장 화폐(Ledger Money)'의 직접적인 후예입니다.

배신의 시작: 비밀 대출과 양적 완화



17세기: 비밀 대출 (동인도 회사 구제)

17세기: 동인도 회사(VOC)의 파산을 막기 위해 암스테르담 은행이 '없는 돈'을 장부에 적어주며 신뢰를 담보로 가짜 돈을 창조했습니다.

21세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연준(Fed)이 단행한 양적 완화(QE)는 시스템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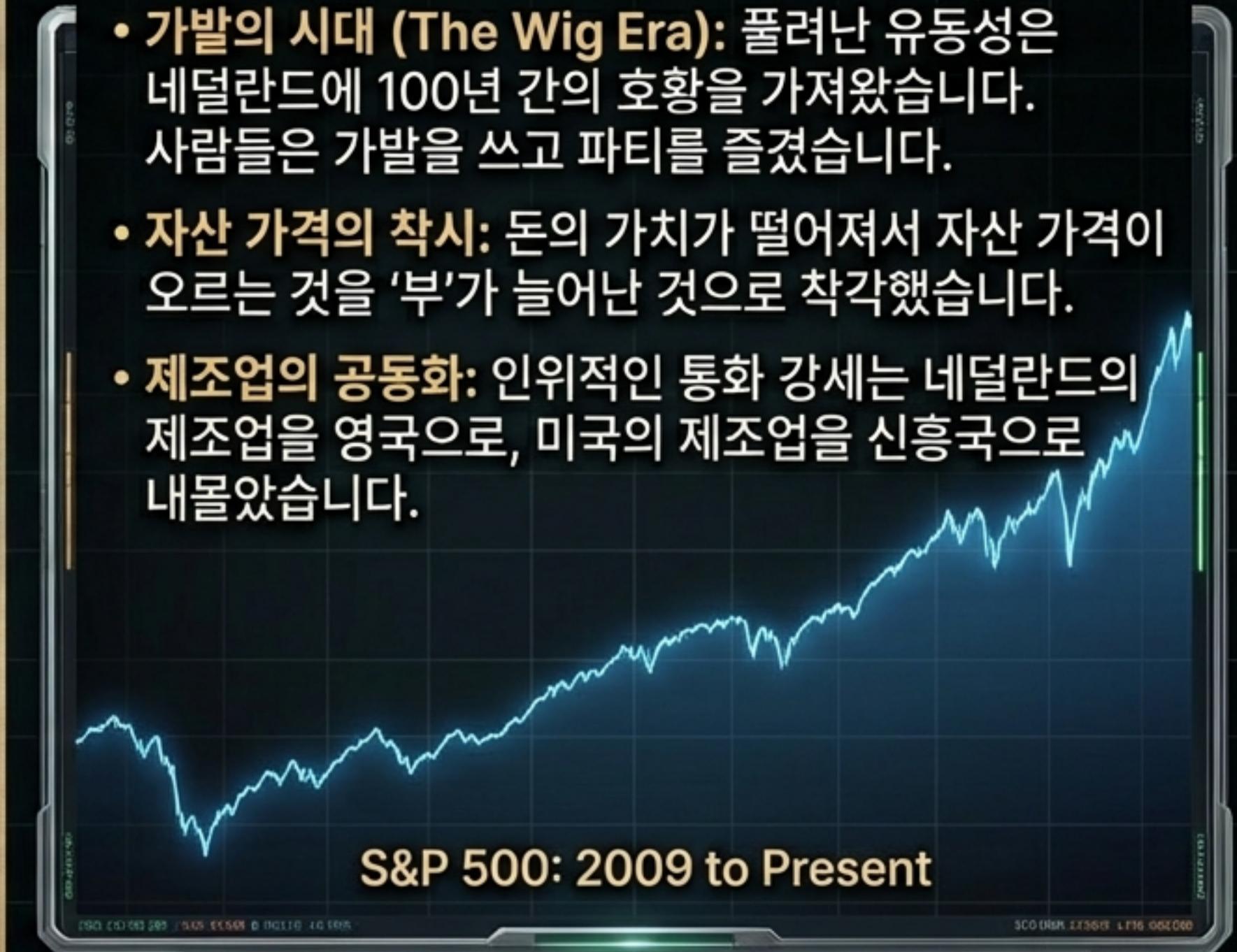


21세기: 양적 완화 (QE)

가발의 시대와 에브리씽 랠리



- **가발의 시대 (The Wig Era):** 풀려난 유동성은 네덜란드에 100년 간의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발을 쓰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 **자산 가격의 착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가 늘어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 **제조업의 공동화:** 인위적인 통화 강세는 네덜란드의 제조업을 영국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신흥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진실의 순간: 텅 빈 금고와 나폴레옹



1795년 - 진실의 확인



2023년 - 초고속 뱅크런

의심의 씨앗: 1780년 전쟁 중 동인도 회사의 부실이 드러나며 대중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파국: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암스테르담 은행의 금고가 열렸고, 실물 금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도의 차이: 과거에는 소문이 마차를 타고 퍼졌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붕괴는 훨씬 빠를 것입니다.

예고편 1: 내부자들의 대탈출 (Warning Signs)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정보에 가장 밝은 '내부자'들(중국, 폴란드, 싱가포르)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송환 요구: 미국에 맡겨둔 금을 본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은 '신뢰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반복: 1790년 네덜란드 귀족들이 뱅크 굴덴을 버리고 은식기와 금 장신구를 사재기했던 현상과 동일합니다.

예고편 2: 찢겨진 경제학 교과서



과거의 공식: 금리 인상 = 금 가격 하락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 감소).

새로운 현실: 실질 금리가 급등하는데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의미: 시장은 이제 '이자'보다 '원금의 안전'을 원합니다.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예고편 3: 채권 시장의 반란

US 10-Year Treasury Yield

5.0% (Danger Zone)

5.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Present

“ The bond market vigilantes are back.
(채권 자경단의 귀환)
- Larry Fink / Ed Yardeni ”

마지노선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본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간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의 경고:** 시장이 미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에 재정 지출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1: 국채 경매 실패와 연준의 항복



시나리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미국 국채 인수를 거부하거나 응찰률이 급락하는 사태.

연준의 개입: 결국 연준이 직접 국채를 매입(양적 완화의 영구화)하게 되는 순간, 이는 '달러 가치 방어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결과: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 및 달러 신뢰의 급격한 붕괴.

트리거 2: 실물 인도 거부 사태



Price Decoupling
(가격 분리)

- 종이 금 vs 실물 금: 현재 금 시장은 대부분 장부상 거래입니다.
- 이중 가격의 형성: 거래소에서 실물 금 인도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종이 금 가격'과 '실물 금 가격'이 영구히 분리될 것입니다.
- 신뢰의 증발: 1795년 암스테르담의 뱅크런처럼 '내 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트리거 3: 페트로 달러의 종말과 자원 민족주의



Petrodollar



Strategic
Metals



- **독점의 붕괴:** 사우디가 달러 외의 통화(위안화, 금)로 석유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달러 패권에 치명타입니다.
- **시대의 전환:** ‘석유의 시대’에서 ‘광물(Metal)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자원 민족주의:** 자원 부국들이 종이돈 대신 실물 자산이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달러 결제를 거부하는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옥석 가리기: 무엇이 살아남는가?

(Sorting the Gems: What Will Survive?)

WINNERS



- **실물 금 (Gold):**
화폐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실물 자산.



- **독점 빅테크 (Big Tech):**
가격 결정권을 가진
초우량 기업.



- **전략 자원
(Strategic Resources):**
구리, 우라늄 등 공급 부족 원자재.

LOSERS



- **신흥국 주식 & 채권
(Emerging Stocks & Bonds):**
달러 유동성 축소 시 타격.



- **장기 국채
(Long-Term Bonds):**
인플레이션과 신뢰 하락의 피해.



- **비핵심 부동산
(Non-Core Real Estate):**
유동성 함정 위험.

우리의 전략: 가장 높은 탑 위에서 기다려라

(Our Strategy: Wait on the Highest Tower)

위기
(Crisis)

\$
Dollar (\$)

Real Assets
(Gold/Resources)

- 고지 점령: 위기가 오면 자금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달러로 먼저 쓸립니다. 원화보다는 달러가
- 환승 타이밍: 달러를 보유하되, 앞서 언급한 3가지 트리거가 발동될 때 달러를 실물 자산으로 교환하십시오.
- 결론: 변화는 역전의 기회입니다. 공포에 질리지 말고, 이 거대한 부의 이전을 냉철하게 준비하십시오.